13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특징과 지역성

정 수 옥
문화재청

Ⅰ.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조사 현황
Ⅱ. 전북지역 지역별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 현황
Ⅲ.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양상과 지역성
Ⅳ. 맺음말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특징과 지역성

- 조사 현황 및 분포 양상을 중심으로 -

정 수 옥 (문화재청)

Ⅰ.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조사 현황[1)]

그동안 전북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처음으로 발견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였다. 1920년 전주군 초포면 운상리(현재는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일대에서 세형동검 1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조선총독부 1931). 해방 이후에는 1964년 익산 용제리 이제마을에서 세형동검 봉부, 동과, 동착, 동제엽형삭기, 토기편 등이 발견신고 되었다(김원용 1968). 1967년에는 익산 오금산유적의 세형동검과 다뉴세문경이 소개되었다(김원용 1967). 유물의 단편적인 조사에 불과하지만 점차 전북지역 고대 문화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전주 황방산에서 세형동모 1점이 발견신고 되었고(전영래 1973), 1975년에는 익산 다송리유적의 석관묘 1기에서 토기와 청동기 그리고 다량의 옥기가 수습되었다(전영래 1975). 완주 상림리유적에서는 청동검(동주식동검) 26점이 발견되었다(전영래 1976).

1980년대에는 1984년 남원 세전리유적에서세형동검(윤덕향 1986), 1987년 익산 평장리유적에서 동검, 전한경, 동모, 동과가 발견되었다(전영래 1987). 1985년에는 전주 여의동유적의 토광묘에서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의 토기류와 동검, 세문경, 동부 등의 청동기류가 수습되었다(전영래 1989). 그리고 1989년에 장수 남양리유적에서 청동기가 일괄로 출토되었다(지건길 1989). 초기철기문화를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이 점차 확인되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정식 발굴조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발견신고에 따른 수습조사를 통해 간헐적으로 청동기가 확인되어, 1980년대까지는 유적 및 유물의 성격과 출토맥락을 명확히하기 어려워 기초적인 이해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는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중요한 유적과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다. 우선 군산의 비응도패총(전북대박물관 · 목포대박물관 2002), 띠섬패총(원광대박물관 2001), 가도패총(충남대박물관 2001), 노래섬패총(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원광대박물관 2002), 남전패총(국립전주박물관 1995)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시간 폭을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1) 본 발표문에 수록된 유적현황 관련 자료들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전북지역 마한문화-성립기편』(2020)을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또한 1997년 장수 남양리유적에서 적석목관묘 4기가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그리고 동검, 다뉴세문경, 검파두식 등의 청동기류와 함께 철부, 철사, 철착의 철기류가 처음으로 발굴되었으며, 청동기와 철기의 공반 양상을 통해 청동기가 감소하고 철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단계로 제시되었다(전북대박물관 2000). 1990년대 말까지 고창 광대리(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산정리(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0), 성남리(Ⅰ)(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6), 전주 여의동(전주대박물관 1990), 군산 도암리(전북대박물관·군산대박물관 2001), 김제 석담리유적(군산대박물관 2002)의 분묘 및 생활유구에서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두형토기 등의 특징적인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익산 신동리유적에서는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 그리고 철부가 확인되었다(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2000년대에 유적의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특히 전북혁신도시 발굴에 따른 성과가 두드러진다. 큰 주목을 받은 곳은 완주 갈동·갈동(Ⅱ)(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2009), 상운리(전북대박물관 2010), 신풍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이다. 갈동유적은 두 차례 발굴을 통해 구상유구 4기와 수혈 2기 그리고 토광묘 17기가 조사되었으며, 60여 점의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기류는 세형동검, 동경, 동모, 동부 등과 함께 세형동검 거푸집까지 확인되었다. 토기, 청동기, 철기, 옥기(유리)가 공반하여 출토된 유구도 조사되어 초기철기문화의 전개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상운리유적은 세 차례 발굴을 통해 주거지 4기, 구상유구 2기, 수혈 3기에서 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등의 토기류가 확인되었다. 신풍유적에서는 81기에 이르는 토광묘가 발굴되었다.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의 토기류, 간두령, 세문경 등의 청동기류, 철부, 환두도자, 철사, 철착 등의 철기류 그리고 과학적 분석 결과 납바륨유리로 판명된 유리장신구까지 출토되어 초기철기시대 유물의 출토 양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완주뿐만 아니라 전주에서도 중인동(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마전(Ⅰ)·(Ⅱ)·(Ⅳ)(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효자4(Ⅲ)(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중화산동(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장동(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원장동(G)(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중인동하봉(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중동(4)·(5)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등 많은 초기철기시대 유적에서 토광묘, 적석목관묘,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군산 둔율(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익산 어양동(호남문화재연구원 2002), 신막(호남문화재연구원 2002), 오룡리(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고창 율계리(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연수동(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김제 산치리(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서정동(군산대박물관 2016), 장화동유적(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등 곳곳에서 유적과 유물이 발굴조사되었다. 다만, 고고학적 자료는 증가되었지만,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의 분묘유적은 풍부한 반면 생활유적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대체로 분묘자료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0년대 이후로도 발굴조사가 활발히 수행된다. 완주 운교유적의 주거지에서는 점토대토기, 적색마연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등 다양한 토기가 확인되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완주 갈산리유적의 주거지와 분묘에서도 점토대토기와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가 주로 발굴되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완주 수계리청등(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둔산리서당유적(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에서는 토광묘가 군집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장품으로 세형동검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안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중동(A)(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원만성(A)(전북문화

재연구원 2018), 만성동·원만성(1-4)(전북문화재연구원 2018), 여의동(2)(전북문화재연구원 2018), 반월동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9) 등이 발굴되었다.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완주와 전주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유적 밀집도와 유물의 수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인접한 익산과 김제지역에서도 유적이 다수 확인된다. 익산 서두리(1)(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구평리(Ⅱ)·(Ⅳ)(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계문동(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송학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광암리·동촌리유적(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8) 등과 김제 상동동(Ⅰ)(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서정동(Ⅱ)(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수록리(군산대박물관 2014), 반월리·부용리(2)·(5)유적(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까지 포함하면 만경강 일대에 상당히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군산, 고창, 정읍, 진안 등지에서도 계속해서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었다.

Ⅱ. 전북지역 지역별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 현황

전북지역은 지형적으로 서부는 평야지대와 동부는 산간지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부터 지형적 구분에 따른 고고 자료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부권역 일대에는 송국리문화가 발달했지만, 동부권역은 지석묘 문화가 상대적으로 번창했다. 또한 전북 동부권은 전남의 영산강과 섬진강, 영남의 남강유역을 이어주는 문화적 점이지대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김승옥 2019).

특히 전북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유적 주변의 주요 수계를 살펴보면 만경강, 동진강, 주진천 등이 있다. 이는 전북지역 연구에 있어서 수계와 산계는 지역권 설정의 중심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한다.(김승옥 2000). 이들 주요 수계를 통해서 활발한 문화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많은 고고학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북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86개소이다.[2] <그림 1>과 <그림 2>에서와 같이 만경강지류에 속하는 익산, 전주, 완주, 군산지역에서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진강 지류로 고창지역에서 유적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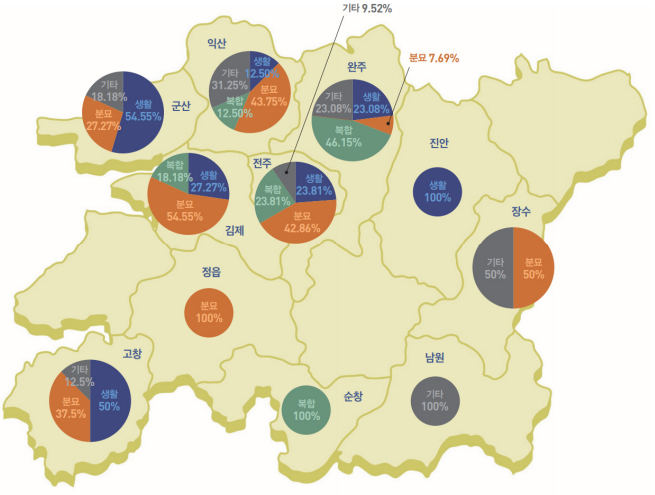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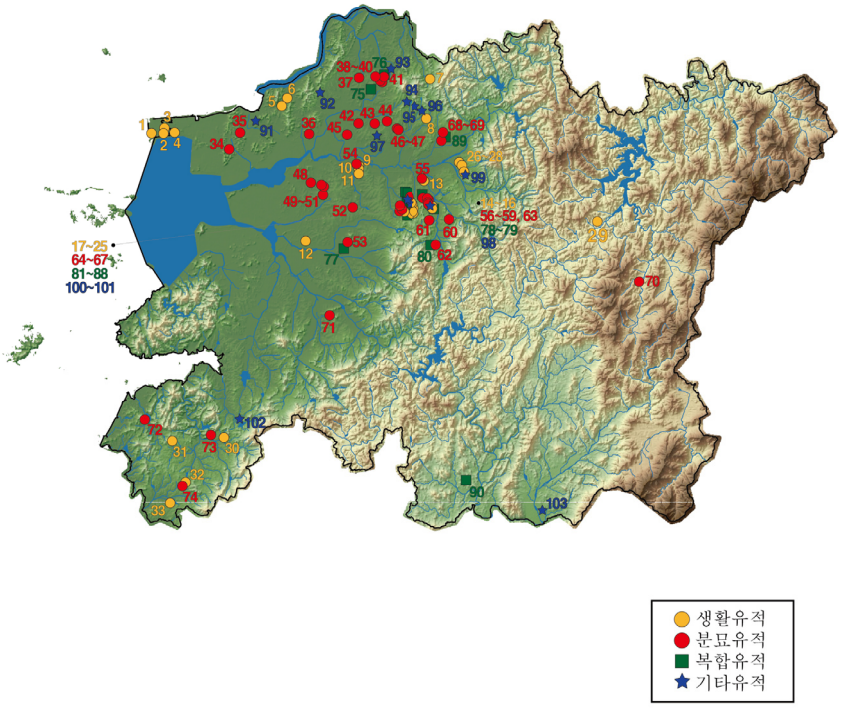


그림 1.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현황

2) 발견신고 및 지표조사로 확인된 유적도 포함된 유적 현황이다.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생활유적

1. 군산 비응도패총
2. 군산 띠섬패총
3. 군산 노래섬패총
4. 군산 가도패총
5. 군산 도암리유적
6. 군산 남전패총
7. 익산 신막유적
8. 익산 광암리-동촌리유적
9. 김제 반월리-부용리(5)유적
10. 김제 반월리유적
11. 김제 석담리유적
12. 김제 장화동유적
13. 전주 반용리유적
14. 전주 마전(Ⅰ)유적
15. 전주 마전(Ⅱ)유적
16. 전주 척동유적
17. 전주 중동(4)유적
18. 전주 중동(5)유적
19. 전주 정문동(가)유적
20. 전주 정문동(나)유적
21. 전주 중동A (가)유적
22. 전주 중동A (나)유적
23. 전주 중동A (라)유적
24. 전주 안심유적
25. 완주 신풍(다)유적
26. 완주 상운리(나)유적
27. 완주 용흥리유적
28. 완주 운교유적
29. 진안 군상리유적
30. 고창 율계리유적
31. 고창 연수동유적
32. 고창 성남리유적
33. 고창 산정리유적

분묘유적

34. 군산 선제리 108-16번지유적
35. 군산 둥율유적
36. 군산 건장산유적
37. 익산 다송리유적
38. 익산 오룡리(3)유적
39. 익산 오룡리(4)유적
40. 익산 오룡리(5)유적
41. 익산 구평리(Ⅱ)유적
42. 익산 계문동유적
43. 익산 어양동(Ⅱ)유적
44. 익산 부송동 석치고개유적
45. 익산 송학리유적
46. 익산 신동리(6)유적
47. 익산 신동리(7)유적
48. 김제 산치리유적
49. 김제 수록리유적
50. 김제 부거리(Ⅷ)유적
51. 김제 부거리(다)유적
52. 김제 상동동(Ⅰ)유적
53. 김제 서정동유적
54. 김제 반월리-부용리(2)유적
55. 전주 반월동유적
56. 전주 여의동유적
57. 전주 여의동(2-1)유적
58. 전주 여의동(2-2)유적
59. 전주 원만성(A)유적
60. 전주 중화산동유적
61. 전주 효자(Ⅲ)유적
62. 전주 중인동유적
63. 전주 만성동 동경출토지
64. 전주 원장동(G)유적
65. 완주 갈산리(나)유적
66. 완주 신풍(가)유적
67. 완주 신풍(나)유적
68. 완주 둔산리 서당(1)유적
69. 완주 수계리 청동유적
70. 장수 남양리(나)유적
71. 장수 지도유적
72. 고창 왕촌리유적
73. 고창 죽림리지석묘
74. 고창 광대리유적

복합유적

75. 익산 서두리(1)유적
76. 익산 구평리(Ⅳ)유적
77. 김제 서정동(Ⅱ)유적
78. 전주 만성동-원만성(1-4)유적
79. 전주 마전(Ⅳ)유적
80. 전주 중인동 하봉유적
81. 전주 중동(C)유적
82. 전주 중동A (다)유적
83. 완주 갈동유적
84. 완주 갈동(Ⅱ)유적
85. 완주 갈산리(가)유적
86. 완주 덕동(D)유적
87. 완주 덕동(F)유적
88. 완주 덕동(G)유적
89. 완주 둔산리 서당(2)유적
90. 순창 동촌유적

기타유적

91. 군산 조촌동 체형동검
92. 군산 관원리 매납유적
93. 익산 연동리 한경
94. 익산 오금산유적
95. 익산 왕궁리 동모
96. 익산 평장리유적
97. 익산 용제리 이제유적
98. 전주 효자동 동모
99. 완주 상운리 체형동검
100. 완주 덕동 유물산포지
101. 완주 상림리 매납유적
102. 고창 송룡리 동검
103. 남원 세전리 체형동검

그림 2.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 현황

유적 성격별로 살펴보면 생활유적에서는 주거지 24기, 수혈 110기, 구상유구 7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400여 점이며 대부분이 토기이다. 분묘유적에서는 토광묘, 적석목관묘, 옹관묘 등의 무덤 246기가 조사되었으며,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 청동기, 철기, 옥기류 등 다양한 종류가 1천여 점에 이른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을 생활유적, 분묘유적, 복합(생활+분묘)유적, 기타(발견신고 및 지표수습)유적으로 분류해서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완주, 전주, 익산에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 외 고창, 군산, 김제에서도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확인된다. 특히 완주, 전주, 익산 지역은 만경강유역권에 속하며 대규모 군집묘, 중요 청동유물 등이 확인되는 곳으로 고대문화의 유입과 확산의 중심지역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산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16개소이다. 패총을 포함한 생활유적이 11개소이며, 분묘유적이 3개소이다. 이 밖에 매납유적과 발견신고된 유적이 각 1개소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리적 위치상 생활유적으로는 패총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군산 선제리 108-16번지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유구로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검파형동기, 세형동검, 소형동부, 동사, 동착, 관상동기, 흑색마연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환옥이 출토되었다. 선제리 적석목관묘는 바닥에 편평한 할석을 전면에 부석하였고, 벽은 판상형 할석을 이용하여 세우고 그 위에 장방형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다.

익산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22개소이다. 생활유적 4개소, 분묘유적 11개소이며, 복합유적 2개소이다. 이 밖에 발견신고 유적이 5개소로 확인되었다. 대규모 취락이나 군집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생활유적은 광암리·동촌리유적과 신막유적에서 조사되었다. 광암리·동촌리유적 주거지 내부에서 발형토기편 및 원형점토대토기 구연부편, 두형토기 대각편 등의 토기류, 수혈 내부에서 무문토기편, 우각형파수부편, 두형토기 대각편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 간 이격거리가 40~130m에 이르는 산발적 분포양상을 보인다. 신막유적 초기철기시대 주거지로 추정되는 수혈 주변에서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를 수습하였다. 해당 유구는 시굴조사 성격으로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출토유물 양상을 통해 초기철기시대의 유구로 추정하였다.

분묘유적은 구평리, 다송리, 부송리석치, 서두리, 신동리, 오룡리 유적 등이 있으며, 다송리유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토광묘이다. 계문동유적에서는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청동 검파두식과 철촉, 철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와 철기가 공반되는 양상은 주변에 위치한 신동리유적의 토광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구평리(Ⅱ)유적에서는 토광묘 4기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 세형동검, 원형점토대토기, 흑색마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구평리(Ⅳ)유적은 초기철기시대 옹관묘 1기와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다송리유적은 1975년 석관묘 1기가 발견 신고되었으며, 내부에서 다뉴조문경 2점, 청동단추 2점 등의 청동유물을 비롯하여 관옥 및 약간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부송동 석치고개유적은 토광묘 4기가 확인되었는데 4호 토광묘에서 원형점토대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서두리(1)유적은 초기철기시대 유구는 토광묘 1기와 수혈 1기가 조사되었으며, 토광묘 내부에서 동사, 수혈 내부에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및 고배 대각편,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송학리유적에서는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토광 내 양 단벽에 홈이 패어져 있어 목곽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내부에 무경식의

삼각편평촉 2점이 출토되었다. 삼각편평촉은 원형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이 공반하는 적석토광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동리유적은 오금산(125m)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의 말단부에 형성되어 있다. 초기철기시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내부에서 흑도장경호편, 세형동검, 검파두식, 점토대토기, 철부, 무문토기 저부편, 2호 토광묘에서 점토대토기, 철사가 출토되었다. 세형동검 및 점토대토기와 더불어 철부와 철사가 공반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오룡리유적은 구릉의 정상부에서 토광묘 4기가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및 흑도장경호의 토기류와 세형동검, 삼각형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김제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14개소이다. 생활유적 6개소, 분묘유적 7개소, 복합유적 1개소로 확인되었다. 생활유적은 반월리유적, 반월리·부용리유적, 석담리 유적 등에서 주거지와 수혈, 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반월리유적에서는 주거지 4기가 남쪽 기슭 중단부 이상, 수혈 10기는 남쪽 기슭 중단부 이하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모두 방형이며, 1호 주거지 동벽에서 화덕 추정지, 2호 주거지 북서벽의 주공, 4호 주거지 타원형 구덩이가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무문토기편, 파수부대옹편, 방추차, 어망추, 석창 등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는 10기 모두 바닥에 불에 탄 굵은 모래층 위에 형성된 목탄층 위에 토기가 남아있어 소성과 관련 있어 보이며, 내부에서는 점토대토기호, 두형토기, 흑도장경호, 무문토기호 등이 출토되었다.

분묘유적은 반월리·부용리유적, 부거리유적, 서정동유적 등 다수 확인되었다. 반월리·부용리유적에서 목관묘2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 옹, 저부, 무문토기 발 등이 있다. 서정동유적에서는 토광묘 5기가 확인되었는데, 10m 이내로 밀집도가 매우 높다. 토층상 토광묘 내부에는 목관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세문경, 동착, 동부 등이 출토되었다. 서정동(Ⅱ)유적에서는 토광묘 6기, 옹관묘 4기, 구상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토광묘는 경사면과 나란하게 동-서 방향으로 조성되었으며, 10m 이내로 소형 군집을 이루고 있다.

전주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29개소이다. 생활유적 12개소, 분묘유적 10개소, 복합유적 5개소이다. 이 밖에 발견신고유적 1개소와 지표수습으로 확인된 유적 1개소가 있다.

마전유적은 구상유구, 수혈 등의 생활유적과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그 외에 안심유적, 정문동유적, 중동유적 등에서 수혈과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었데, 내부에는 대부분 무문토기, 호형토기, 심발형토기, 점토대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분묘유적은 마전, 만성동, 반월동, 여의동, 원장동, 중동, 중인동유적 등 다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만성동·원만성(1-4)유적에서는 적석목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1호 적석목관묘는 2단 굴광되었는데, 하단광이 상단광보다 좁게 굴착되었으며, 적석부와 내부토에서 흑색마연 단경호와 동착, 동사편, 동경편, 관옥 등이 출토되었다. 1단 굴광된 2호 적석목관묘는 삼국시대 석축묘와 중복되어 남벽이 파괴되었으며, 유물은 두형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만성동에서는 개간된 밭에서 다뉴세문경과 흑도장경호가 발견되면서 조사되었다. 경작하면서 유구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목관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는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기에서 세형동검, 동사, 관옥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 외에도 반월동유적, 여의동유적, 원장동유적, 중인동유적 중화산동 유적 등에서 토광묘가 다수 확인되었다.

완주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19개소이다. 생활유적 4개소, 분묘유적 5개소, 복합유적 7개소이다. 이 밖에 매납유적 및 발견신고유적이 각 1개소이며, 유물산포지 1곳이 확인되었다. 생활유적

으로 갈산리유적, 덕동유적, 둔산리서당유적, 신풍유적, 용흥리 유적 등에서 주거지 및 수혈이 다수 확인되었다.

분묘유적은 완주, 갈동, 갈산리, 덕동, 둔산리서당, 수계리청등, 신풍유적 등 다수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신풍이나 갈동유적에서는 대규모 군집묘가 확인된다.

신풍(가)유적은 해발 53m의 독립된 구릉에 해당한다. 초기철기시대 유구는 토광묘 57기가 확인되었다. 가지구의 토광묘는 구릉의 작은 골짜기를 경계로 크게 5개 군집으로 구분된다. 1·2군은 유물 출토율이 낮은 편이며, 3·4·5군은 청동기·철기류 및 유리장신구가 부장되며 유물 부장양상에서 다양성을 보인다. 3군에서 청동기가 증가하고 철기가 등장하는 양상을 보이며, 규모가 큰 22·35호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공반하여 출토된다. 4군에서는 청동기·철기류 외에 석촉과 유리장신구가 부장되는데, 유물의 종류를 달리하여 2점 이상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5군은 각 유구의 부장품에서 유물의 다양성 및 출토량이 풍부하며,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단 1기를 제외하고 모두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54호 토광묘에서 간두령 2점이 출토되었다. 신풍(나)유적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24기가 조사되었다. 7기의 토광묘에서 목관의 사용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점토대토기옹, 흑도장경호, 파수부호 등의 토기류가 단독부장되는 경우와 동경, 동검, 동사, 동착 등의 청동기류와 각 1점씩 공반되어 출토되는 양상이 보이며, 특히 23호에서 동경·동검·검파두식·동과·동부·동사 등의 청동유물이 집중적으로 부장되었다.

갈동유적은 토광묘 4기와 수혈 1기, 구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 청동촉의 청동기류, 철겸, 철부의 철기류, 흑도장경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점토대토기, 대부호 등의 토기류를 비롯하여 세형동검 거푸집, 환형유리, 관옥 등이 확인되었다. 갈동(Ⅱ)유적은 토광묘 13기와 구 3기가 확인되었다. 세형동검이 출토된 14호 토광묘를 중심으로 10여 기의 토광묘가 군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6기의 토광묘에서 동경, 세형동검, 동모, 동부, 동사 등의 유물이 단독 또는 토기 및 철기류와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구는 경사가 급한 구릉의 북쪽과 동쪽에 형성되었는데, 내부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 및 미완성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장수의 분묘유적 1개소만 확인되었다. 남양리(나)유적에서 적석목관묘 4기, 수습지(적석목관묘 추정) 1곳이 확인되었다. 1차 조사는 1989년 주민 발견신고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교란된 상태로 축조 당시의 유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1997년 조사에서 4기의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었다. 내부에는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지역과 달리 군집을 이루고 있다.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세형동검, 검파두식, 동경, 동모, 철부, 철착, 관옥 등이 출토되었다.

정읍의 분묘유적 1개소가 확인되었다. 정토유적은 적석토광묘 2기가 조사되었다. 1호 적석토광묘에서 흑도장경호 1점과 원형점토대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순창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1개소이며, 생활유구와 분묘유구가 모두 확인된 복합유적이다. 동촌유적에서 토광묘 1기는 구릉의 중단부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묘광 바닥에는 목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토기류를 제외한 세형동검, 동부, 동착, 동사,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고창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8개소이다. 유물포함층에서 유물이 확인된 유적을 포함해서 생활유적 4개소, 분묘유적 3개소이며, 이 밖에 발견신고유적 1개소가 확인되었다. 진안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1개소이며, 주거지가 확인된 생활유적이다. 남원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1개소이며, 세형동검 1점이 수습된 발견신고유적이다.

표 1. 지역별 초기철기시대 유적 현황 및 출토유물

연번	유적명	유구	분묘	생활	중요유물
1	군산 가도A패총	문화층		1	점토대토기
2	군산 가도E패총	패각층		1	점토대토기
3	군산 건장산	옹관묘	1		점토대토기, 우각파수부토기
4	군산 관원리	매납			동모, 철검, 흑색마연토기
5	군산 남전패총	패각층		1	점토대토기
6	군산 노래섬패총(나)	문화층		1	점토대토기, 흑도소호, 우각형파수편
7	군산 노래섬패총(다)	문화층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흑도장경호
8	군산 노래섬패총(라)	문화층		1	점토대토기
9	군산 도암리	주거지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10	군산 둔율	토광묘	1		흑도장경호
11	군산 띠섬패총(Ⅰ)	패각층		1	점토대토기
12	군산 띠섬패총(Ⅱ)	패각층		1	점토대토기
13	군산 비응도A패총	패각층		1	점토대토기
14	군산 비응도B패총	패각층		1	점토대토기
15	군산 선제리 108-16번지	적석목관묘	1		검파형동기, 동검, 동부, 동사, 동착, 흑색마연장경호, 점토대토기, 환옥
16	군산 조촌동 세형동검	발견신고			세형동검
17	익산 계문동	토광묘	1		무문토기, 검파두식, 철도자, 철촉
18	익산 광암리·동촌리(4)	주거지, 수혈		4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발형토기, 두형토기대각편, 우각형파수부편
19	익산 광암리·동촌리(7-A)	수혈		1	토제방추차
20	익산 광암리·동촌리(11)	수혈		2	무문토기, 두형토기
21	익산 구평리(Ⅱ)	토광묘	4		점토대토기, 흑색마연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22	익산 구평리(Ⅳ)	옹관묘, 수혈	1	1	옹, 심발, 무문토기
23	익산 다송리	석관묘	1		조문경, 청동단추, 청동원형장신구편, 벽옥제관옥
24	익산 부송동 석치고개	토광묘	4		점토대토기
25	익산 서두리(1)	토광묘, 수혈	1	1	옹형토기, 발형토기, 고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우각형파수부호, 동사, 석촉, 반월형석도, 석재, 갈판
26	익산 송학리	토광묘	1		석촉
27	익산 신동리(6)	토광묘	1		흑도장경호
28	익산 신동리(7)	토광묘	2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동검, 검파두식, 철사, 철부
29	익산 신막	수혈		1	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30	익산 어양동(Ⅱ)	옹관묘	1		점토대토기
31	익산 연동리 한경	발견신고			한경
32	익산 오금산	발견신고			세형동검, 다뉴세문경
33	익산 오룡리(3)	토광묘	1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석촉
34	익산 오룡리(4)	토광묘	1		장경호

연번	유적명	유구	분묘	생활	중요유물
35	익산 오룡리(5)	토광묘	2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조문경, 석촉
36	익산 왕궁리	수습			동모
37	익산 용제리 이제	발견신고			동검 봉부, 동과, 동착, 동제엽형삭기, 토기편
38	익산 평장리	발견신고			동검, 전한경, 동모, 동과
39	김제 반월리	주거지, 수혈		14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편, 뚜껑, 우각형파수, 고배편
40	김제 반월리·부용리(2)	목관묘	2		점토대토기
41	김제 반월리·부용리(5)	수혈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42	김제 부거리(Ⅻ)	토광묘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43	김제 부거리(다)	토광묘	1		
44	김제 산치리	토광묘	1		발형토기, 석촉
45	김제 상동동(Ⅰ)	토광묘	1		점토대토기
46	김제 서정동	토광묘	5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무문토기, 세문경, 동부, 동착, 동사
47	김제 서정동(Ⅱ)	토광묘, 옹관묘. 구상유구	10	3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무문토기, 소호, 세형동검, 검파두식, 철겹, 철부, 철모, 석촉, 관옥
48	김제 석담리(B)	구상유구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장경호, 우각형파수
49	김제 석담리(C)	구상유구		1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무문토기, 우각형파수
50	김제 석담리(D)	구상유구		1	두형토기, 무문토기, 우각형파수, 어망추, 석촉
51	김제 수록리	토광묘	7		소호, 동부
52	김제 장화동	수혈		1	점토대토기, 흑도소호
53	전주 마전(Ⅰ)	구상유구		2	점토대토기, 장경호, 고배, 조합식우각형파수
54	전주 마전(Ⅱ)	수혈, 구상유구		7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고배, 석촉, 연석, 지석
55	전주 마전(Ⅳ)	토광묘, 수혈	1	3	점토대토기
56	전주 만경동 동경출토지	토광묘	1		흑도장경호, 동검, 세문경, 동사, 검파두식, 관옥
57	전주 만성동·원만성(1-4)	적석목관묘, 구상유구	2	3	점토대토기, 흑색마연토기, 적색마연토기, 두형토기, 동검, 다뉴세문경, 동사, 동착, 관옥, 환옥, 석기
58	전주 반용리	수혈		1	점토대토기
59	전주 반월동	토광묘	3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흑도장경호, 검파두식, 동착, 유리옥, 환옥, 관옥, 마제석촉
60	전주 안심	주거지		2	점토대토기, 심발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송풍관, 방추차
61	전주 여의동	토광묘	1		흑도장경호, 조문경, 선형동부, 동착, 동과
62	전주 여의동(2-1)	토광묘	2		무문토기
63	전주 여의동(2-2)	토광묘	1		
64	전주 원만성(A)	적석목관묘	2		
65	전주 원장동(G)	토광묘	5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세문경, 동부, 동사, 동과, 검파두식
66	전주 장동	지표수습			점토대토기
67	전주 정문동(가)	수혈, 구상유구		6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심발형토기, 두형토기, 파수, 대각편, 방추차
68	전주 정문동(나)	수혈, 구상유구		10	무문토기, 호형토기, 심발형토기, 두형토기, 대각편, 파수, 방추차, 토우, 토제품

연번	유적명	유구	분묘	생활	중요유물
69	전주 중동(4)	주거지, 수혈		9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고배, 조합식우각형파수, 토제방추차, 청동제품, 석제품, 석촉
70	전주 중동(5)	수혈		1	무문토기
71	전주 중동A (가)	수혈, 구상유구		11	무문토기, 두형토기, 파수, 대각
72	전주 중동A (나)	수혈, 구상유구		8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파수, 대각편, 토제품
73	전주 중동A (다)	토광묘,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	1	9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대각편
74	전주 중동A (라)	구상유구, 유물포함층		7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파수, 대각편
75	전주 중동(C)	옹관묘, 유물포함층	1	1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무문토기, 두형토기, 동검
76	전주 중인동	토광묘	9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77	전주 중인동 하봉	토광묘, 구상유구	1	1	점토대토기, 흑도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동부
78	전주 중화산동	토광묘	15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발형토기, 동검, 반월형석도
79	전주 척동	수혈		1	점토대토기
80	전주 효자동 동모	발견신고			동모
81	전주 효자4(Ⅲ)	적석목관묘	1		동검, 세문경, 옥, 유리장신구
82	완주 갈동	토광묘, 수혈, 구상유구	4	3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고배, 뚜껑, 파수, 방추차, 세문경, 동모, 동부, 동촉, 동사, 철부, 철사, 철겸, 동경용범, 환형유리
83	완주 갈동(Ⅱ)	토광묘, 구상유구	13	3	점토대토기, 발형토기, 장경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84	완주 갈산리(가)	옹관묘, 주거지, 수혈	2	5	점토대토기, 발형토기, 장경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석제품
85	완주 갈산리(나)	토광묘	1		
86	완주 덕동유물산포지	지표수습			동착 용범
87	완주 덕동(D)	토광묘, 구상유구, 수혈	3	5	점토대토기, 소호, 흑도소호, 무문토기, 대부호, 우각형파수, 동검, 동경, 동부, 동착, 동사, 무경식석촉, 지석
88	완주 덕동(F)	토광묘, 구상유구, 수혈	2	9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두형토기, 우각형파수, 검파두식, 동과, 석촉
89	완주 덕동(G)	토광묘, 구상유구	2	8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우각형파수, 두형토기대단편, 동검, 동부, 동경, 석기편
90	완주 둔산리 서당(1)	토광묘	6		흑도소호, 동검, 동부, 동사
91	완주 둔산리 서당(2)	토광묘, 수혈	19	16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발형토기, 소호, 두형토기, 동검, 동사, 동부, 석촉, 갈판형석기
92	완주 상림리	매납			동주식동검
93	완주 상운리(나)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		9	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두형토기
94	완주 상운리 세형동검	발견신고			세형동검
95	완주 수계리 청등	토광묘	5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가락바퀴
96	완주 신풍(가)	토광묘	57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세문경, 동사, 동착, 동과, 동관, 검파두식, 철촉, 철도자, 환두도자, 철부, 철사, 철착, 유리장신구세트
97	완주 신풍(나)	토광묘	24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세문경, 동부, 동사, 동착, 동과, 검파두식
98	완주 신풍(다)	건물지, 수혈, 소성유구, 구상유구		11	무문토기, 파수, 반월형석도, 석촉

연번	유적명	유구	분묘	생활	중요유물
99	완주 용흥리	수혈		15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장란형토기편, 방추차
100	완주 운교	주거지		1	점토대토기, 심발형토기, 적색마연토기, 뚜껑, 조합식우각형파수, 석촉
101	장수 남양리(나)	적석목관묘, 수습지	4(1)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세형동검, 세문경, 동모, 동착, 철부, 철착, 철사, 검파두식
102	정읍 정토	적석토광묘	2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103	순창 동촌	토광묘, 주거지, 구상유구, 수혈, 폐기장	1	9	세형동검, 동부, 동착, 동사, 무문토기, 홍도, 지석, 석부, 석촉, 방추차, 어망추
104	고창 광대리	토광묘	1		무문토기 장경호
105	고창 산정리	수혈		7	무문토기편, 점토대토기편, 파수, 석촉
106	고창 성남리(Ⅰ)	수혈, 구상유구		2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무문토기
107	고창 송용리 동검	발견신고			세형동검
108	고창 연수동	유물포함층		1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시루
109	고창 왕촌리	석관묘	1		흑도장경호
110	고창 율계리	수혈		4	점토대토기, 고배, 방추차
111	고창 죽림리지석묘	지석묘 매장주체부	1		점토대토기
112	진안 군상리	주거지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113	남원 세전리 세형동검	발견신고			세형동검

Ⅲ.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양상과 지역성

앞서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조사 현황과 분포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묘유적이 생활유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익산, 전주, 완주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유적이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구제발굴에 의해 조사된 유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설명하거나 중심지역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전북지역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문화는 마한의 성립기 물질문화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준왕의 정착지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세력이 마한의 성립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발표자는 준왕의 남천과 함께 새롭게 유입되는 또 다른 물질문화의 유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회상으로 유구의 군집화, 유리·철기와 같은 새로운 소재의 등장 등으로 보고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분묘유적 중 적석목관묘와 토광묘, 생활유적 중 주거지와 수혈이 확인된 유적들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그림3, 표3·4).

적석목관묘는 군산, 익산, 장수, 전주에서 확인된다. 장수 남양리유적에서만 4기가 군집을 이루고

대부분 1기씩 확인되며, 출토유물도 토기, 청동기, 철기, 구슬 등 유물이 모두 확인되었다.

토광묘의 경우 만경강과 동진강까지 서부지역 다수에 분포하고 있으며, 낮은 구릉 정상부나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완주, 전주, 김제, 익산 등지에서 조사되었는데, 완주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의 군집묘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토기, 청동기, 철기, 옥기, 석기 등 다양하다. 청동기는 완주 갈동, 덕동, 둔산리 서당, 수계리청등, 신풍, 익산 계문동, 서두리, 신동리, 오룡리, 전주 만성동, 여의동, 반월동, 원장동, 김제 서정동, 수록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철기는 완주 갈동, 신풍, 익산 계문동, 신동리, 김제 서정동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슬은 완주 갈동, 신풍, 전주 만성동, 반월동, 원장동, 김제 서정동에서 출토되었다. 유물의 조합상으로 보면 완주 갈동과 신풍유적에서는 토기류, 다양한 종류의 청동기류, 철부, 구슬이 공통적이 확인되고, 익산은 구슬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확인된다. 그리고 전주는 철기가 출토되지 않지만 청동기와 다량의 구슬이 함께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군산, 김제, 순창, 완주, 전주에서 11개 유적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낮은 구릉 정산부나 사면부에 입지하고 있고, 전주와 완주지역에서 주거지가 다수 확인된다. 하지만 분묘유적 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대부분 토기류가 출토되었으나. 전주 안심유적에서는 송풍관편이 출토된 바 있다.

한편 주거지는 조사 사례가 적으나 수혈 유구는 모두 23개유적에서 110기가 조사되었다.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완주와 전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완주 용흥리 유적에서는 철부 1점이 출토되었다.

한편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을 지도에 표시하고 QGIS의 밀도추정분석을 해보았다(그림4). 대상 유적은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48개소, 생활유적 3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대는 발굴조사보고서 및 연구 논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집도는 미발굴 지역에 대한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오류도 분명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향성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의 유적별 밀도추정도를 살펴보면 초기철기시대 전북지역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분묘유적과 생활유적 모두 완주와 전주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유적으로 완주 갈동, 둔산리 서당, 신풍, 전주 중인동, 중화산동에서 10~80여기 이상의 대규모 집단묘가 확인되었고, 주거 및 수혈유구가 완주 덕동, 용흥리, 둔산리 서당, 전주 중동 마전, 김제 반월리, 고창 산정리에서 15기이상의 취락군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완주와 전주 일원에서 군집화된 분묘군과 생활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토유물에서도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파수부호, 발 등의 다양한 토기류, 동검, 동모, 검파두식, 간두령, 정문경 등의 청동기류, 철부, 철도자, 철촉, 철사 등의 철기류, 유리 및 관옥, 거푸집 등 출토유물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다량의 물질문화가 나타나는 양상이다.[3)]

뿐만 아니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거푸집, 덕동 유물산포지에서 확인된 동착 거푸집 등은 이 일대가 청동기 제작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안심유적 1호주거지와 마전유적 4호구에서 출토된 송풍관에서 제련과 관련된 생산시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한수영 2020).

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에 대한 유적 분포현황조사 및 고지형 분석을 실시하여,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유적 41개소를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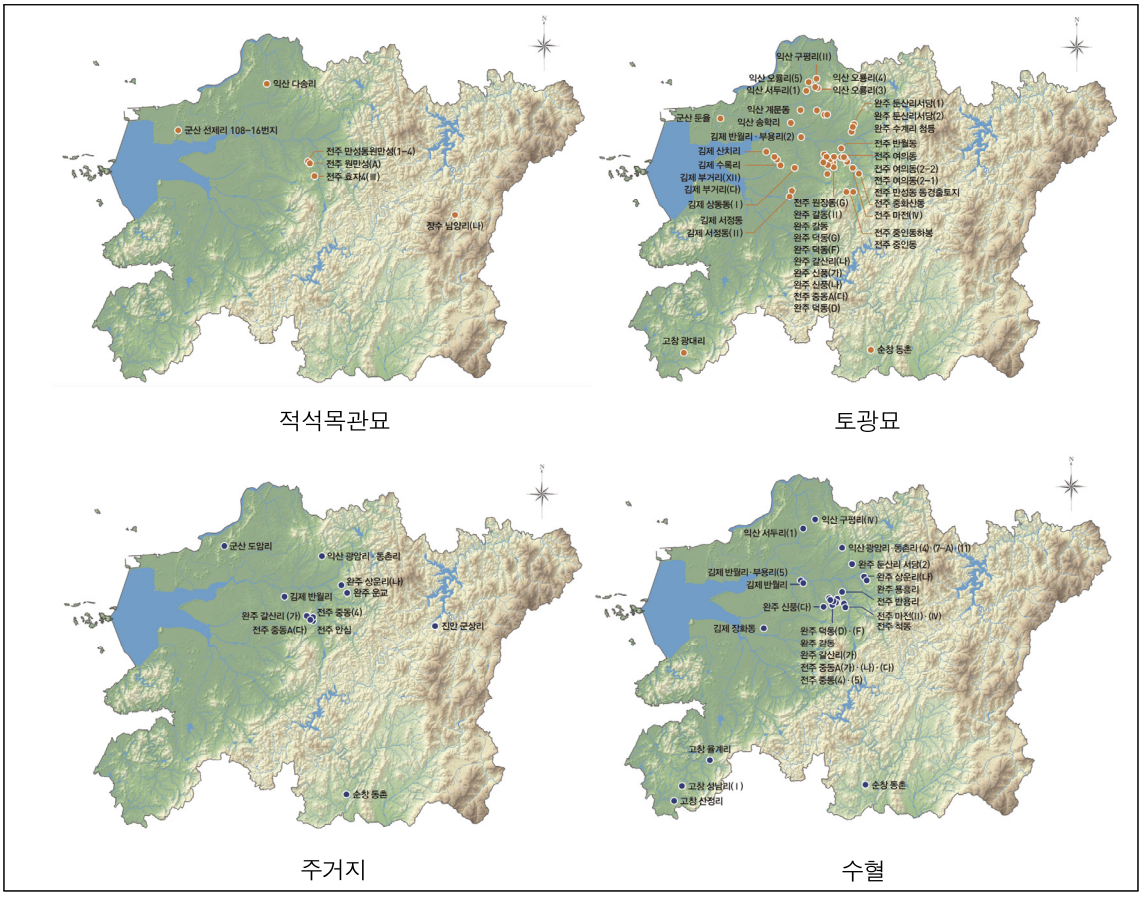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유구별 분포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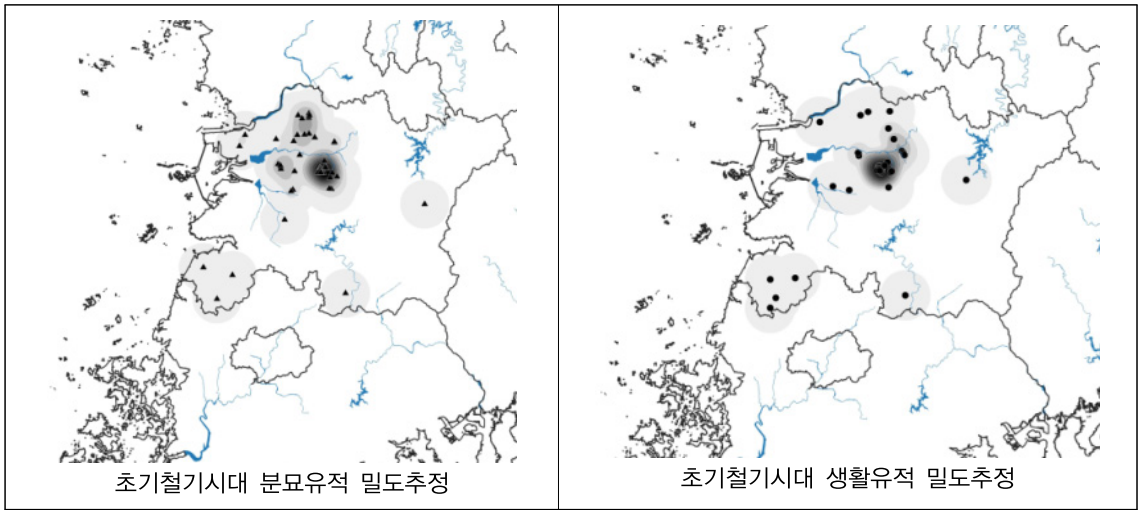


그림 4. 초기철기시대 분묘 및 생활유적 분포 비교

표 3.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분묘 출토 유물 현황

유적명	유구종류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유리옥			광물옥		석제품
	토광묘수	적석목관묘수	옹관묘수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흑도장경호	파수부호	우각파수부토기	원통형토기	발형토기	대부발	흑색토기	적색마연토기	호	소호	단경호	장경호	대부호	대부소호	옹형토기	시루	두형토기	방추차	철부	철겸	철사	철착	철촉	봉부	철도자	환두도자	철제품	동검	다뉴조문경	다뉴세문경	검파두식	검파형동기	동과	동모	동사	동부	동착	동촉	동관	동포	간두령	관상동기	동검거푸집	청동원형장신구	동기편	환형유리	유리제관옥	유리제환옥	관옥	환옥	
고창 광대리	1				1																																																			
군산 건장산			1	1				1																																															
군산 둔율	1					2																																																	
군산 선제리 (108-16번지)		1		1		1																											8				3			1	1	1					1								131	
김제 반월리·부용리	2			3	1									1									1																																	
김제 부거리	2			1	2																																																		
김제 산치리	1									2																																													3
김제 상동동	1			1																																																			
김제 서정동	5			1	1	1																													1					2	1	1														
김제 서정동(Ⅱ)	6			1	1	1									1		1		1					2	1				1				1			1																		2		4
			4	5											2					3																																				
김제 수록리	7				4																																				1															
순창 동촌	1																																1							1	1	1														
완주 갈동	4			6	2	4		1										1						3	2																		3					2			2			1		
완주 갈동	13			1	5	3				1			1											4		1							1		2				1	1	1									2				2		
완주 갈산리	1		2	1				2		1																																														
완주 덕동	7			3		2	1					1			1			1															3	1	1	1		1		2	2	1														3
완주 둔산리 서당	25			2	4	5				2		1			1																		5							2	2															1
완주 수계리 청등	5			1		1				1													1										1																							
완주 신풍	81			15	4	42	1	3	1	3	1	8		2					1					5		1	1	3		3	2	1	5		8	2		2		5	1	3		1		2					2	19	87	5		3
익산 계문동	1				1																							2		1						1																				
익산 구평리 (Ⅱ)	4			5								3																					1																							
익산 구평리 (Ⅳ)			1							1										1																																				
익산 다송리		1																																1											2				1					93	17	

유적명	유구종류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유리옥			광물옥		석제품
	토광묘수	적석목관묘수	옹관묘수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흑도장경호	파수부호	우각파수부토기	원통형토기	발형토기	대부발	흑색토기	적색마연토기	호	소호	단경호	장경호	대부호	대부소호	옹형토기	시루	두형토기	방추차	철부	철검	철사	철착	철촉	봉부	철도자	환두도자	철제품	동검	다뉴조문경	다뉴세문경	검파두식	검파형동기	동과	동모	동사	동부	동착	동촉	동관	동포	간두령	관상동기	동검거푸집	청동원형장신구	동기편	환형유리	유리제관옥	유리제환옥	관옥	환옥	
익산 부송동석치고개	4			2																																																				
익산 서두리 (1)	1																																							1																
익산 송학리	1																																																							2
익산 신동리	3			2	1	1																		1		1							1			1																				
익산 어양동 (Ⅱ)			1	2																																																				
익산 오룡리	4			3	3	3																											3	1																						8
장수 남양리		4		1		1																		3		4	1						2		1	2			2			1										4		4		
전주 마전 (Ⅳ)	1				1																																																			
전주 만성동 동경출토지	1					1																											1		1	1				1														4		
전주 만성동 원만성 (1-4)		2		1								1	1									2											2		1					2		1								1			1	55		2
전주 반월동	3			1	2	1																														3						1										7		40	3	2
전주 여의동	4				1	1																												2							1	1														
전주 원만성 (A)		2																																																						
전주 원장동 (G)	5			1												1	2																8		2	4		1		2	1												8	22		10
전주 중동A (다)	1			3	2																																																			
전주 중동 ©			1		1			1																																																
전주 중인동	9			3	4	2																											1																							
전주 중인동하봉	1			2								1																													1															
전주 중화산동	15			1	2																												2																							1
전주 효자4 (Ⅲ)		1																															1		1																			5	1	
정읍 정토[4]		2		1		1																																																		
합계	221	11	10	72	41	75	2	8	1	11	1	15	2	1	3	1	3	2	2	3	1	2	2	18	3	7	2	5	1	4	2	1	47	5	18	16	3	4	3	20	13	11	3	1	2	2	1	2	1	3	4	30	96	233	152	13

4) 보고서에서는 적석토광묘로 보고되었다.

표 4.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출토 토기 현황

연번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수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흑도장경호	파수	파수부호	우각파수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원통형토기	발형토기	대부발	흑색토기	적색마연토기	호	소호	직구호	편구호	단경호	장경호	대부호	대부소호	호형토기	옹형토기	옹	시루	두형토기	대각	뚜껑
1	군산 도암리	주거지	7	4	3																										
2	김제 반월리	1호 주거지	1																							1					
		2호 주거지	2		2																										
		3호 주거지	3		1						2																				
3	완주 갈산리	1호 주거지(가)	5	1	3																	1									
		2호 주거지(가)	4		3								1																		
4	완주 상운리	1호 주거지(나)	9	1	4						2																		1	1	
		2호 주거지(나)	3		3																										
		3호 주거지(나)	7	4	2																									1	
		4호 주거지(나)	1		1																										
5	완주 운교	8호 주거지	55	2	31					2			7			3													1	2	7
6	익산 광암리·동촌리	kc001호 주거지(4)	8	1	3								2																	2	
7	전주 안심	1호 주거지	6	3	2								1																		
		2호 주거지	8	2	5					1																					
8	전주 중동	1호 주거지(4)	67	14	29	2	1			5							5												1	9	1
		2호 주거지(4)	23	5	14						1															1			1		1
		3호 주거지(4)	29	6	14		1			5							1													2	
		4호 주거지(4)	9	4	3												2														
		5호 주거지(4)	41	6	20			1		4							1												3	3	
9	전주 중동A	1호 주거지(다)	53	9	22		2			5	8																			7	
10	진안 군상리	2호 주거지	2	1	1																										
합계			343	63	166	2	4	1	0	22	13	0	11	0	0	3	9	0	0	0	0	1	0	0	0	2	0	0	7	27	9

완주와 전주 일원에 확인된 유적의 분포, 물질문화의 다양성은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교류의 중심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성과에 주목하고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20년에 완주 갈동유적과 전주 황방산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와 고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이 일원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유적은 45개소, 유물산포지는 28개소에 이른다.

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그림 5>와 같이 청동기시대(25개소)·초기철기시대(5개소)·원삼국시대(11개소) 신규 유물산포지 41개소를 새롭게 확인하였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b).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새로 5개소가 확인되어 황방산을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에 모두 24개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완주 반교리 갈동 유물산포지G는 기존에 보고된 갈동 유물산포지F를 포함하여 북쪽으로 확장된 구역으로 유물산포지는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구릉의 정상부(해발 37m)와 북사면 일원에 해당된다. 정상부에는 수목장과 민묘가 조성되어 있는데, 유적의 입지상 구릉의 정상부(반교리23-30)를 중심으로 하는 북사면(반교리 23-24 번지)에서 두형토기 대각을 비롯한 무문토기편이 수습됨. 두형토기 대각과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초기철기시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 무문토기는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능선에 조성된 생활유적이거나 무덤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완주 반교리 갈동 유물산포지H는 호남고속도로와 전주 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갈동 유적이 위치한 구릉과 동일한 사면부로 갈동 유적의 서쪽에 자리하는 지점으로 해발 41m 내외의 구릉 정상부와 남사면부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임야와 잡풀이 우거져 있으며, 이식과 민묘조성 등으로 부분적으로 교란된 상태이다. 토기편은 호형토기 계통으로 추정되며, 토기편 주변에서 소토흔으로 추정되는 바닥면이 확인되어 생활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 삼동 유물산포지A는 천잠산(해발 159m)에서 황방산(해발 217m)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남동쪽 사면부에 위치한다. 비교적 경사가 심한 편으로 묘지와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점토대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유물은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사면부에서 수습되었는데, 소형편으로 전체적인 양상을 살피기는 어려우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며, 단면 역시 전형적인 원형과는 차이가 있다. 유적은 구릉의 정상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 중동 유물산포지A는 천잠산에서 황방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서 북서쪽으로 흘러내린 잔구성 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넓은 충적지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는 해발 30m 내외의 동서로 긴 구릉 형태로 남아 있다.

완주 갈동 유물산포지G 위치

완주 갈동 유물산포지G 수습유물

완주 갈동 유물산포지H 위치

완주 갈동 유물산포지H 수습유물

전주 중동 유물산포지A 위치

전주 중동 유물산포지A 수습유물

전주 척동 유물산포지A 위치

전주 척동 유물산포지A 수습유물

그림 5.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 초기철기시대 신규 유적(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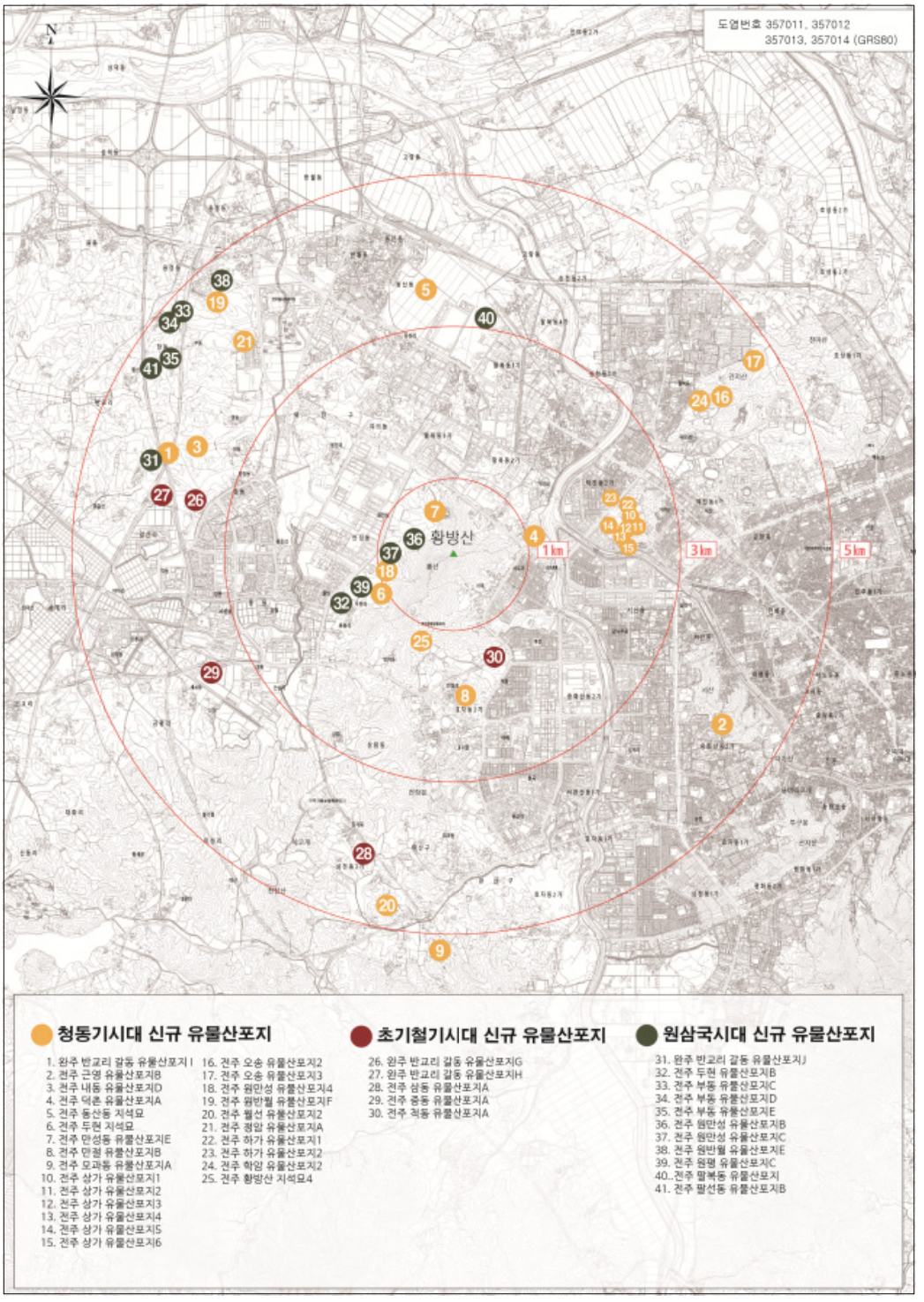


그림 6.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 청동기 · 초기철기 · 원삼국시대 신규 유물산포지(4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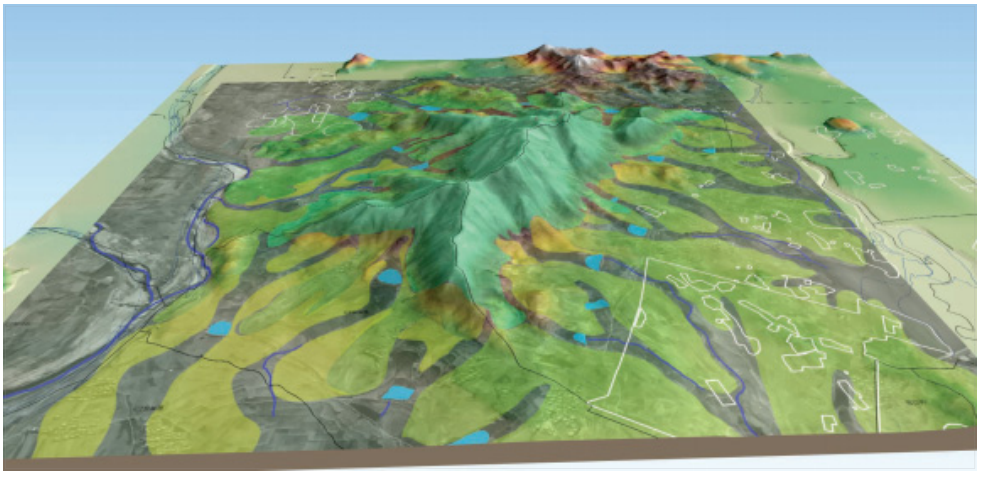
전주 중동 유물산포지A 주변은 국립축산원 부지로 조성되면서 원지형이 삭토되었으나, 본래 중동 유물산포지A는 현재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정상부(해발 40m)를 둔 단독구릉을 이루고 있다. 유물산포지는 산책로 등이 조성되었으나 비교적 원지형이 잘 남아 있으며, 산책로 주변으로 원형의 점토대토기편을 비롯하여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로 보아 생활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주 척동 유물산포지A는 유연로와 천잠로가 만나는 사거리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황방산 자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내린 사면의 말단부로,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다가 전주천으로 이어짐. 능선의 사면부에서 점토대토기의 점토띠와 무문토기편을 비롯하여 선문이 타날된 회백색경질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능선을 중심으로 묘역이 조성되면서 중앙부는 부분적으로 삭토된 것으로 판단되며, 무문토기편은 무덤구역의 하단부에 해당하는 동쪽경계 부분에서 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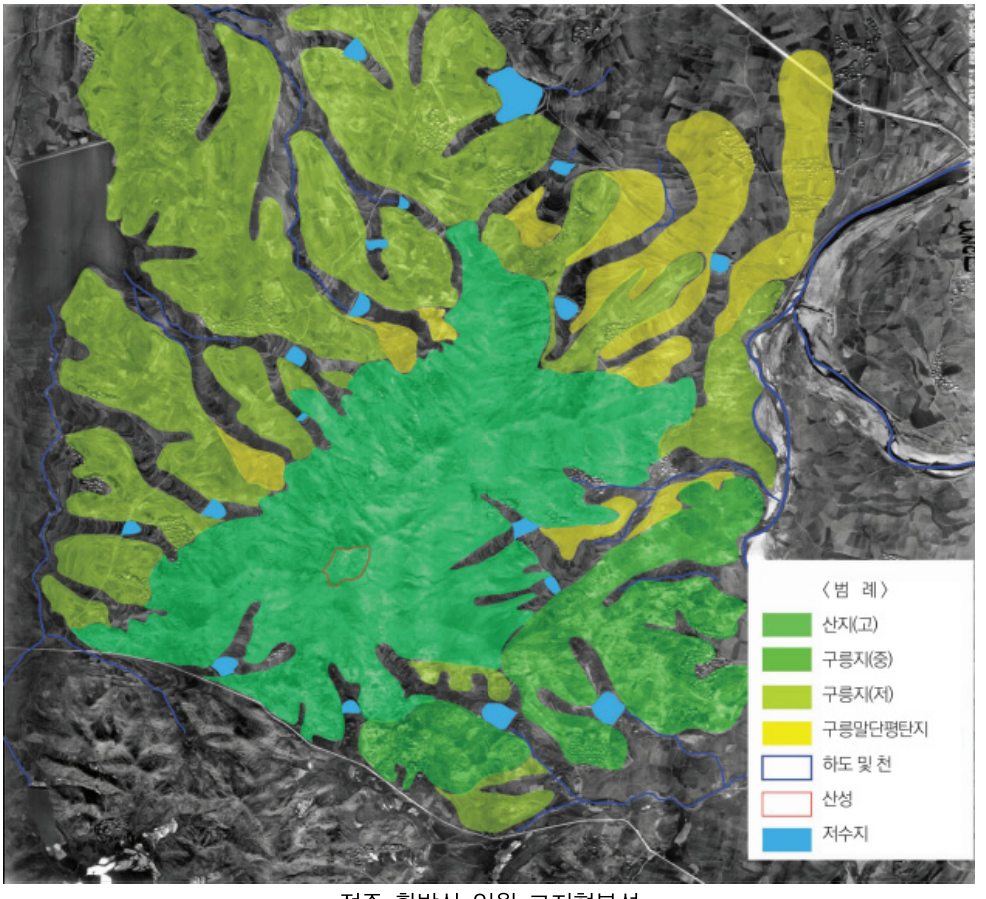
한편 이 일대에 대한 고지형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을 통해 황방산 일원은 산지와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황방산과 그 일원은 구릉의 말단부에서 미지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완주 갈동유적은 구릉지형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황방산의 구릉지형 사이에 형성된 곡부에는 곳곳으로 지천이 흐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곡저부에서 지천을 막아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이는 황방산의 수원이 풍부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며, 이전부터 이 곡저부 지형이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이러한 입지는 구릉지에 존재하는 유적과 관련한 경작지 등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황방산에서 주변을 조망하고 황방산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곡부를 활용하여 관개시설이 축조되고 낮은 구릉지를 중심으로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완주 갈동유적과 그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유적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갈동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의 지형을 살펴보면 구릉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유적은 구릉의 정상부를 지준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가지 능선이 펼쳐져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을 중심으로 여러 방향으로 구릉지형이 연결되고 있으며, 유적이 입지한 곳을 중심으로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곡부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 주변으로의 이동에도 좋은 조건이다. 이와 관련한 유적간 네트워크 관계는 보다 정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형적 입지 조건은 당시의 토광묘를 축조하기에 좋은 여건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b).

특히 초기철기시대 유적으로 새롭게 확인된 유물산포지도 기존 갈동유적 인접지역으로 산포지가 확인되는 점에서도 지형적 입지와 매우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주 황방산 일원 3D지형도 복원



전주 황방산 일원 고지형분석

그림 7. 전주 황방산 일원 고지형 분석 복원도(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b)

Ⅳ. 맺음말

이상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발굴조사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분포와 지역별 · 유구별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만, 발표자가 짧은 기간동안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사업을 담당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문을 작성하였기에 짧은 식견으로 논리적 비약이나 잘못된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향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집성하고 새롭게 확인된 유적들과 분석 내용등은 향후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많은 고고학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련의 연구 성과를 통해 만경강 일대가 초기철기문화의 중심지로 주목되고 있다. 지금껏 주로 초기철기시대의 분묘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부장품과 함께 사회적복합도, 정치체, 위계, 정체성, 등의 커다란 고고학적 주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점차적으로 생활유적을 포함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초기철기시대와 관련한 이해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초기철기시대에 관한 많은 부분은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향후 체계적인 분석과 통합적인 접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a, 『전북지역 馬韓 문화-성립기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b,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 유적분포현황 조사 보고서』.

국립전주박물관, 2016,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유적, 유물, 발굴 그리고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2015, 『완주 상림리 靑銅劍』.

국립전주박물관·(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금강의 새로운 힘 2100년 전 완주 사람들』.

국립청주박물관, 2019, 『한국의 청동기 자료 집성(Ⅰ,Ⅱ,Ⅲ)』.

완주군청·국립전주박물관, 2019,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완주군, 2018, 『완주군 만경강유역 고고유적』.

전라북도박물관, 1973, 『全北遺蹟調査報告 第2輯』, 普光出版社.

전라북도박물관, 1975, 『全北遺蹟調査報告 第5輯』, 普光出版社.

전라북도박물관, 1976, 『全北遺蹟調査報告 第6輯』, 普光出版社.

전라북도박물관, 1979, 『全北遺蹟調査報告 第10輯』, 普光出版社.

권오영, 2014, 「고대 한반도에 들어온 유리의 고고, 역사학적 배경」, 『韓國上古史學報』第85號, 韓國上古史學會.

權五榮, 2017, 「韓半島에 輸入된 琉璃구슬의 變化過程과 經路 -初期鐵器~原三國期를 중심으로-」, 『湖西考古學報』第37輯, 湖西考古學會.

金奎正, 2004, 「湖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 檢討 - 圓形粘土帶土器를 中心으로 -」, 『湖南文化財硏究』 제4호, (財)湖南文化財硏究院.

金周弘, 2007, 「古代 琉璃玉 製作技術 硏究」,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정, 2017, 「점토대토기문화기 석재사용 분묘 검토 - 호서·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 『韓國靑銅器學報』第20號, 韓國靑銅器學會.

김규정, 2020,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과 그 변화」, 『湖南考古學報』第65輯, 湖南考古學會.

김규정, 2020, 「주거지로 본 마한성립기의 호남」, 제28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湖南考古學會.

김상민, 2020, 「철기로 본 마한성립기의 호남」, 제28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湖南考古學會.

金承玉 외, 2004, 「완주 상운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한국고고학대회』 제28회, 韓國考古學會.

김승옥, 2016,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韓國考古學報』第99輯, 韓國考古學會.

김승옥, 2017, 「만경강 일대 선사문화의 전개와 성격 -전북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第55輯, 湖南考古學會.

김승옥, 2019, 「호남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상호관계」 『湖南考古學報』第63號, 湖南考古學會.

김승옥, 2020, 「만경강의 물질문화와 마한의 성립」 『전북지역 馬韓 문화-성립기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송종열, 2016, 「점토대토기문화 시기의 전북혁신도시」, 제24회 호남고고학 학술대회, 湖南考古學會.
유철 외, 2012, 「전주 만성동 초기철기시대 유적」, 2012년 유적조사 발표회, 韓國考古學會.
최완규, 2016, 「전북 혁신도시의 역사와 문화」, 제24회 호남고고학 학술대회, 湖南考古學會.
최완규, 2020, 「마한성립기의 호남」, 제28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湖南考古學會.
한수영, 2014, 「完州地域을 中心으로 한 多鈕細文鏡의 展開樣相」, (財)湖南文化財硏究院.
한수영, 2015,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 硏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수영, 2016,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제24회 호남고고학 학술대회, 湖南考古學會.
한수영, 2020, 「전주 황방산 일원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분포 현황과 특징」『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 유적분포현황 조사 보고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